

# IMF + 법

## <수완내용 핵심정리>

### 1. IMF 가입과 납입 방법

IMF에 가입하려면 국가가 IMF와 협의를 통해 출자금(쿼타)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쿼타는 국가의 경제 규모와 경제력에 따라 결정되며, 그 금액은 IMF의 의사결정에서 회원국의 투표권과 자금 조달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회원국은 자신의 쿼타를 일부 현금과 일부 자기 통화로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 방법은 보통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25%는 외화(주로 SDR 또는 주요 외환으로 지급):** 이 부분을 통해 회원국이 IMF 자금을 요청할 때, 이 자금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75%는 자국 통화:** 이 자금은 IMF가 회원국의 특정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 2. 골드 트랑슈(Gold Tranche)

골드 트랑슈는 IMF에서 회원국이 자국 통화의 기여금에 따라 인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인출 권한입니다. 과거에는 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골드 트랑슈"라고 불렸습니다. 회원국이 IMF 자금을 인출할 때, 첫 번째 트랑슈(인출권)는 대부분의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 **자유 인출 가능 금액:** 골드 트랑슈는 회원국의 쿼타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를 인출할 때에는 IMF가 특별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기본 자금 조달 수단:** 회원국이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외환이 부족할 때 골드 트랑슈는 간편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 3.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

SDR은 1969년에 IMF가 창설한 국제적인 준비자산으로, 회원국 간에 교환이 가능한 자산입니다. SDR은 미국 달러, 유로, 중국 위안, 일본 엔, 영국 파운드 등 주요 통화를 기준으로 한 가중평균 환율을 바탕으로 가치가 결정됩니다.

- **SDR의 목적:** 회원국들이 외환 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SDR을 보유하거나 필요할 때 다른 통화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 유동성을 제공하고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 **SDR의 사용:** 회원국은 외환이 필요할 때 SDR을 통해 다른 국가의 외환 보유고와 교환할 수 있으며, IMF 차입의 담보로도 사용됩니다.
- **가치:** SDR의 가치는 IMF가 정기적으로 조정하며, 통화 바스켓의 구성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SDR은 특정 통화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확장 연계대비>

IMF(국제통화기금)는 국제 금융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 1. IMF의 법적 설립 기반: 조약법과 설립 협정문

IMF는 IMF 설립 협정문(Articles of Agreement)이라는 조약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이 협정문은 IMF의 목표, 기능, 권한 등을 명시하며, 회원국 간 법적 관계를 규정합니다.

모든 IMF 회원국은 이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법적으로 IMF의 규칙과 정책에 동의하며, IMF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IMF가 제공하는 금융 지원은 협정문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회원국은 지원금 사용 및 상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조약법>

□ **회원국의 책임:** IMF에 가입한 국가는 자국의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IMF에 제공해야 합니다.

□ **자금 지원 조건:** IMF는 금융위기 등 특정 상황에서 회원국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개혁 등의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자금을 받은 국가가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환율 안정:** IMF는 국제 환율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 가능 환율제도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회원국 간의 경제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 **의사결정 방식:** IMF는 각 회원국의 경제적 기여도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비중이 큰 나라들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2. IMF의 주권 문제와 내정불간섭 원칙

IMF가 경제 지원을 제공할 때, 회원국의 경제 정책이나 구조 조정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MF는 내정불간섭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동시에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정책의 시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는 예산 삭감, 공공부문 개혁, 통화 가치 절하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회원국의 법적·정치적 주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IMF의 요구 사항이 회원국 내에서 법적 논쟁을 유발하거나 정치적 저항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IMF는 한국에 대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구조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에는 노동법 개정, 금융 구조 조정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국내법 및 정부의 정책과 조정 과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IMF의 권고가 국내법의 변경이나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법적·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3. 국제금융법과 IMF의 대출 조건: 프로그램의 법적 성격

IMF는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원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구체적인 조건이 포함됩니다. IMF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해당 국가의 경제 개혁을 요구하며, 이는 각국의 경제법이나 재정법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IMF의 대출 조건은 보통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 **재정 긴축:** 공공 지출 삭감 및 세금 인상 요구
- **구조 개혁:** 산업 구조 조정, 노동법 개정 등
- **금융 규제 강화:** 은행 시스템 개선 및 금융 투명성 제고

이러한 조건들은 IMF가 회원국의 경제 정책을 법적 제도로서 지원하려는 노력이지만, 동시에 각국의 기존 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IMF의 대출 조건은 회원국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경제적·법적 측면에서 다양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 4. IMF와 분쟁 해결 메커니즘

IMF는 회원국 간 또는 IMF와 회원국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IMF의 대출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출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IMF는 회원국과 협상하거나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는 국제법에서 중재 또는 조정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IMF는 회원국과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IMF는 보통 법적 소송 대신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하며, 이를 위해 중재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협정문 내에 명시된 규정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IMF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적 절차보다는 협정문 내의 규정에 따라 재정적 제재나 지원 중단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 IMF와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법적 관계

IMF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무역기구(WTO)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들 간의 법적 관계는 국제 경제법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합니다. IMF와 세계은행은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 설립되었으며, 두 기관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IMF는 단기 유동성 지원을 주로 제공하는 반면, 세계은행은 장기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IMF와 WTO의 협력은 특히 무역 정책과 경제 정책 간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합니다.

WTO는 자유무역과 무역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IMF는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양 기관은 무역과 금융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해 각국의 무역과 금융 정책이 상충하지 않도록 조정 역할을 수행합니다.

#### 6. IMF의 투명성 및 법적 책임성 강화

최근에는 IMF의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IMF의 법적 책임성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MF는 회원국에 대한 대출 조건을 설정할 때 투명성을 유지하고, 해당 국가의 정치·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IMF는 이러한 투

명성 제고를 위해 보고서 및 대출 조건을 공개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형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IMF의 활동은 국제법적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경제적 구제 및 개혁 요구 과정에서 국제법과 회원국의 법적 권리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포함합니다.

조약법, 주권과 내정불간섭 원칙, 국제금융법, 분쟁 해결 메커니즘 등 여러 법적 요소가 IMF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도 국제 경제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 수완 IMF대비 - 연계지문 ★

최적통화지역은 단일 통화가 통용되거나 여러 통화들의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최적의 지리적인 영역을 지칭한다. 여기서 최적이란 대내외 균형이라는 거시 경제의 목적에 의해 규정되는데, 대내 균형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대외 균형은 국제수지 균형을 의미한다. 최적통화지역 개념은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의 상대적 장점에 대한 논쟁 속에서 발전하였다. 변동환율론자들은 가격과 임

금의 경직성이 있는 국가에서 대내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동환율 제도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적통화지역 이론은 어떤 조건에서 고정환율 제도가 대내외 균형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 고려했다.

초기 이론들은 최적통화지역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준을 찾으려 하였다. 먼델은 노동의 이동성을 제시했다.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다면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대내외 균형 유지를 위한 임금 조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이고 결국 환율 변동의 필요성도 작을 것이다. 잉그램은 금융시장 통합을 제시하였다. 금융시장이 통합되어 있으면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 경상수지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자본 이동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조정의 압력이 줄어들게 되므로 지역 내 환율 변동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케넌은 재정 통합에 주목하였다. 초국가적 재정 시스템을 공유하는 국가들은 일부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에 재정 지출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환율 변동의 필요성이 감소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고정환율 제도 아래에서도 대내외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후 최적통화지역 이론은 위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일 통화 사용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을 한다.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면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이 충족되며 단일 통화를 형성할 수 있다. 단일 통화 사용의 편익은 화폐의 유용성이 증대된다는 데 있다. 거래 비용이 줄고, 환율 변동의 위험이 없어지며, 가격 비교가 쉬워진다는 점에서 단일 화폐의 사용은 시장 통합에 따른 교환의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반면에 통화정책 독립성의 상실이 단일 통화 사용에 따른 주요 비용으로 간주된다. 단일 통화의 유지를 위해 대내 균형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비용은 가격과 임금이 경직될수록, 전체 통화지역 중 일부 지역들 사이에 서로 다른 효과를 일으키는 비대칭적 충격이 클수록 증가한다. 가령 한 국가에는 실업이 발생하고 다른 국가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한 국가는 확대 통화정책을, 다른 국가는 긴축 통화정책을 원하게 되는데, 양 국가가 단일 화폐를 사용한다면 서로 다른 통화정책의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노동 이동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비대칭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독립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은 감소한다. 반대로 두 국가에 유사한 충격이 발생한다면 서로 다른 통화정책을 택할 필요가 줄어든다. 이 경우에는 독립적 통화정책을 포기하는 비용이 감소한다.

최근 ㉠ 유로 지역의 경제 위기는 최적통화지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로 지역 내 국가 간 불균형을 분명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유로 지역 내 노동 이동이 일국 내의 이동만큼 자유롭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로 지역은 최적통화지역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더욱이 유로화 등장 이후 유로 지역 내에서 해외 투자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유럽의 핵심국에서 유럽의 주변국으로 엄청난 자본 이동이 발생하였고, 그 때문에 주변국에는 경기 과열이 발생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자본 이동이 중단되자 주변국은 더 이상 호황을 지탱하지 못하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실업과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하게 되었다. 환율 조정 수단을 상실한 유로 지역은 핵심국과 주변국 사이의 불균형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게 된 것이다.

더구나 최적통화지역 이론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은행 문제까지 부각되었다. 은행 채무를 국가가 떠맡으면서 GDP 대비 공공 부채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국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불안이 가속되었으며 이는 다시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은행의 신뢰까지 손상을 입혔다. 이들 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매각하려 함에 따라 국채 가격이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7. 위 글에서 '최적통화지역 이론'과 관련하여 고려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장 통합으로 인한 편익의 계산 방식
- ② 환율 변동을 배제한 경상수지 조정 방식
- ③ 화폐의 유용성과 시장 통합 사이의 관계
- ④ 단일 화폐 사용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키는 조건
- ⑤ 독립적 통화정책 없이 대내 균형을 달성하는 조건

8. 위 글에 따를 때, ㉠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주변국의 임금을 인하한다.
- ② 장기적으로 주변국의 공공 부채 비율을 줄여 나간다.
- ③ 유로 지역 전체에 초국가적 재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 ④ 핵심국으로부터 주변국으로의 자본 이동을 활성화한다.
- ⑤ 유로 지역 외부로부터 핵심국으로 노동 이동을 활성화한다.

9. <보기>와 같은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 B, C, D 국가로만 이루어진 세계를 상정하고, 이들 국가에서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A국은 x통화, B국은 y통화, C, D국은 z통화를 사용한다. A와 B국 사이에만 노동 이동이 가능하다. 국가들 사이에 금융시장과 재정은 통합되어 있지 않다. A, C국은 목재를, B, D국은 자동차를 생산하여 수출한다. 이 세계에서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목재 수요가 감소하였다. 가격과 임금이 경직성이 존재할 때 A, C국에서 실업이 발생하고, B, D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 ① A와 B국에는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하였으나 노동의 이동이 가능하므로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을 충족한다.
- ② A와 C국에는 서로 유사한 충격이 발생하였으므로 노동의 이동 여부와 무관하게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③ A와 D국에는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하였고 노동의 이동도 불가능하므로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④ B와 D국에는 서로 유사한 충격이 발생하여 독립적 통화정책의 포기에 따른 비용이 없으므로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을 충족한다.
- ⑤ C와 D국은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 있으나 비대칭적 충격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 수완 IMF 연계지문 ★

가정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를 쓰듯이 국가도 외국과의 교역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통계를 작성하게 된다.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서비스 및 자본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하여 기록한 통계가 국제 수지표이다. 여기서 일정 기간은 통상 1년으로 설정된다. 국제 통화 기금(IMF)에서 국제 수지 통계의 포괄 범위 및 평가 기준을 정하고 각국은 여기에 따라 국제 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국제 통화 기금은 대외 거래의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에는 이 기준을 개정해 오고 있다. 현행 국제 수지표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차감한 경상 수지와 자본 이전 등을 기록하는 자본 수지,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융 거래를 기록하는 금융 계정으로 분류된다. 금융 계정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자산으로, 비거주자가 국내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부채로 기록한다. 금융 계정의 자산 항목에는 자산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자산 증감액을, 부채 항목에는 부채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부채 증감액을 각각 기록하며, 금융 계정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금융 계정 순자산으로 인식한다. 국제 수지표에는 기초 통계의 오류나 통계 작성상의 실수 등에 따른 약간의 오차와 누락이 존재하지만 이를 무시한다면,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의 합에서 금융 계정 순자산을 차감하면 '0'이 되도록 국제 수지표가 작성된다.

국제 수지표에 기록되는 대외 거래는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경제적 거래를 기록하므로 거주성과 소유권의 변동 여부가 중요하다. 여기서의 거주성은 국적보다는 거래 당사자의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 정해진다. 통상적으로 개인이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 활동 및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그 나라에 있다고 본다. 즉 개인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본국을 떠나 해외에서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본국의 거주자로 보는 반면, 해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국가에서 설립되고 법적으로登記되어 법인격을 획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A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B국에 설립 등기한 현지 법인은 비록 실질적인 경영권은 A국의 본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A국의 입장에서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또한 거주자가 해외의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이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타국에 판매하는 경우라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상품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상품 수출입에 해당하게 된다.

한 국가가 1년 동안 비거주자와 거래를 하고 나면 국내 거

주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규모에 변동이 있기 마련이고, 이 변동은 나라 전체로 보면 대외 지급 능력의 변동을 가져온다. 1년 동안에 발생한 거래를 기록하는 국제 수지표와는 달리 연말 시점에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대외 금융 자산(또는 대외 투자)과 비거주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대외 금융 부채(또는 외국인 투자) 및 대외 금융 자산에서 대외 금융 부채를 차감한 순대외 금융 자산의 잔액을 보여 주는 것이 국제 투자 대조표이다. 일반적으로 순대외 금융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국제 투자 대조표에서는 대외 금융 자산 및 대외 금융 부채의 연초 잔액에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에 따른 기간 중 증감을 조정하여 연말 잔액이 작성된다. 거래 요인은 매매, 차입 등 실제 경제적 거래를 통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 국가 간 자금의 이동이 수반된다. 비거래 요인은 경제적 거래는 없으나 자산이나 부채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 자금의 이동은 수반되지 않는다. 이 요인은 환율이나 가격 변동 그리고 이외의 기타 변동으로 세분된다. 국제 투자 대조표는 국제 수지표와 마찬가지로 특정 통화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기준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에서는 기준 통화의 대외 가치인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시장 가치에 대한 평가가 변동한다. 한편 비거래 요인 중 가격 변동은 환율 이외의 가격 변수가 움직임에 따라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 가치의 평가 변동을 의미한다.

국제 수지표의 금융 계정은 거래 시점에서의 실제 시장 가격으로 대외 거래를 작성하는 유량 통계인 반면, 국제 투자 대조표는 대외 금융 자산과 대외 금융 부채 잔액을 연말 시점에서 평가하여 기록한 저량 통계라는 점에서 이들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유량 통계와 저량 통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욕조에 물을 받을 때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과 욕조 안에 고인 물을 상상해 보자. 수도꼭지에서 1분당 5리터의 물이 배출된다고 할 때 10분이 지난 시점에서는 욕조에 50리터의 물이 고이게 된다. 이 경우 욕조에 담겨 있는 '50리터'의 물이 저량이 되고 유입되는 '5리터/분'이 바로 유량이 되는 것이다. 만약 국제 투자 대조표가 작성되는 연초와 연말 시점 사이에 비거래 요인의 변동이 없다면 이 두 시점 간 국제 투자 대조표에 기록된 잔액의 차이는 국제 수지표의 금융 계정과 개념상 동일하게 된다.

이처럼 한 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은 상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에 기초한 경상 수지 흑자를 통한 외화 자산의 축적과 더불어 대외 금융 활동을 통한 투자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경상 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대외 금융 활동의 투자 실적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할 경우 순대외 금융 자산이 감소하여 대외 지급 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자국의 대외 신용도가 하락함에 따라 비거주자들이 국내 투자 자금을 회수할 경우 환율이 상승하

여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국제 경쟁에서 산업 경쟁력과 더불어 금융 역량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경상 수지 흑자가 매년 지속하여 누적된 국가의 경우라도 국제 투자 대조표상 순대의 금융 부채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 ②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본국에 상품을 판매한 경우는 우리나라 경상 수지의 수출 항목으로 기재된다.
- ③ 국제 수지표상 금융 계정에 기록된 주식, 채권 등 대외 금융 자산의 가치는 연말 시점에서의 평가된 시장 가격으로 작성된다.
- ④ 기업의 경우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되는 나라를 법적등기 여부로 판정하여 국제 수지 표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한다.
- ⑤ 국제 투자 대조표에서 대외 금융 자산 및 대외 금융 부채의 증감과 국제 수지표상의 금융 계정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 이는 비거래 요인의 변동에 의한 것이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국은 자국 통화인 달러화를 기준으로 국제 투자 대조표를 작성하고 있다. 순대의 금융 자산이 0을 유지해 오던 A국은 2023년에는 100억 달러의 경상 수지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B국 거주자는 향후 A국의 주식 시장이 호황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자국 통화를 A국 통화로 환전한 50억 달러를 A국의 주식 시장에 투자하였다. A국은 경상 수지와 금융 계정을 통해 150억 달러가 유입되었는데, A국 거주자는 이를 C국 통화로 환전하여 C국의 주식 시장에 전액 투자하였다. 2023년에는 비거래 요인에 의해 시장에서 평가된 가치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단, 각국의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은 모두 자국 통화로 표시된다.

2024년에 A국의 경상 수지 및 금융 계정 순자산이 모두 0이라고 하자. A국의 주가는 예상대로 2배 상승한 반면 C국의 주가는 1/2배로 폭락하였다. 또한 A국 통화의 대외 가치는, B국 통화에 대해서는 1/2배로 하락한 반면 C국 통화에 대해서는 2배 상승하였다. 한편 이 해에는 국가 간 자금 이동은 없었으며 주가와 환율 이외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 ① 2023년도 A국의 국제 투자 대조표에는 대외 금융 자산이 150억 달러, 대외 금융 부채가 50억 달러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 ② 2023년에는 A국의 대외 지급 능력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2024년도에는 A국의 순자산 증감액과 순부채 증감액이 같을 것이다.
- ④ 2024년도 A국 국제 투자 대조표상의 대외 금융 부채는 100억 달러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 ⑤ 2024년도 A국 국제 투자 대조표상의 대외 금융 자산은 75억 달러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3.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거주자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를 위해서는 경상 수지 흑자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 ②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 거래는 국내 거래이므로 국제 수지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 ③ 가격 변동 이외의 비거래 요인 변동이 없다면, 국내 주가 하락은 대외 지급 능력을 개선시키는 요인이다.
- ④ 국제 투자 대조표의 거래 요인에 의한 순대의 금융 자산은 환율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 수지표상의 금융 계정과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 ⑤ 국내 본사가 해외의 A국에 설립 등기를 마친 현지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의 B국에 설립 등기를 한 또 다른 현지 법인에게 되파는 경우는 국제 수지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C)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국제 수지표					
		경상 수지					
		(A)					
국제 투자 대조표	- 대외 금융 자산(연초)	B	(비거래 요인)			- 대외 금융 자산(연말)	
	- 대외 금융 부채(연초)		C	가 격 변 동	기 타 변 동		- 대외 금융 부채(연말)
	- 순대의 금융 자산(연초)						

- |         |       |     |
|---------|-------|-----|
| (A)     | (B)   | (C) |
| ① 금융 계정 | 자본 수지 | 환율  |
| ② 금융 계정 | 자본 수지 | 주가  |
| ③ 자본 수지 | 금융 계정 | 금리  |
| ④ 자본 수지 | 금융 계정 | 환율  |
| ⑤ 자본 수지 | 금융 계정 | 주가  |

5. 윗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어느 해의 순대의 금융 자산이 음(-)의 값을 기록하였다면 이듬해에 순대의 금융 자산이 양(+)의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상 수지 흑자는 필요조건이다.
- (나) 국제 수지표에서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가 모두 흑자를 기록하여 양(+)의 값을 가질 경우 오차와 누락이 없다면 금융 계정 순자산 역시 항상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
- (다) 국제 투자 대조표에서는 기준 통화와 자국 통화와의 환율만 고정되어 있으면 제3의 통화의 환율 변동에 의한 대외 금융 자산 및 대외 금융 부채의 가치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 (라) 일국이 다른 국가에 가공용 원재료를 제공한 후 가공 후 가공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 이 상품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품 거래는 상품 수출입에서 제외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